

베이비부머의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길태영 중부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시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과 PROCESS macro 3.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희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미래시간조망을 확장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고, 미래시간조망 확장수준이 낮더라도 희망을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주관적 안녕감, 미래시간조망, 희망, 베이비부머

I. 서론

국가마다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출생아 수가 유난히 높은 특정시기에 급격한 출산율을 보이며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s)라고 한다(이현정 2016).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한 출산율을 보이며 태어난 세대로 1955년에서 1963년까지 9년 동안의 출생 코호트로 약 728만 명이 이에 해당되며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집단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다(길태영·이진용 2017). 2020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와 함께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고,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이 삶의 목표를 갖고 심리적·사회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유경 외 2009; Charles 2010; Carstensen et al. 2011).

주관적 안녕감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나타내주는 용어로(Seligman and Csikszentmihalyi 2000), 감정이나 감정의 경험 또는 즐거움, 삶의 의미나 감정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Ben-Shahar, 2007).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참여, 만족 및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Watson 1930; Diener 2001). 사회과학에서는 주관적 복지의 개인적 경험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Kesebir and Diener 2008),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개인의 주관적 복지 또는 삶의 질적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간이나 단위, 수로 표시되는 지표의 정확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Chekoal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강조되었다(Husman and Shell 2008). 중년기인 베이비부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미래시간조망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

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재 삶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Drakulić et al. 2003; Simons et al. 2004; Vazquez and Rapetti 2006; Hoppmann et al. 2017). 이러한 미래시간조망을 강력하게 증가시키면 개인의 가치나 관점에 따른 목표의 근접성에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 미래의 장기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Husman and Shell 2008).

그러나 예비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가 미래시간조망을 확장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생에서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야 하고, 노화나 죽음에 대한 인식 등으로 미래시간조망에 대해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지각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가중되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appaport et al. 1993).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약화로 삶의 질에 위협을 받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희망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있고(Diener et al. 1999),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Ryan and Deci 2001; Sheldon et al. 2002; Hoppmann et al. 2017)에서 유용함이 확인된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희망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미래시간조망의 역할이 부족하게 될 때 새롭게 부각되는 요인인 희망은 현실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행동적 변화를 유지하거나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Green et al. 2007; Nuttin 2014). 희망은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특질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스트레스,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Beck et al. 1985; Masten and Coatsworth 199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경험적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하여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8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4호 (2021)

작업이다(Diener 1984; Diener 2006). 또한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경험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Haybor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하는 위기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능동적인 뉴시니어로서의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심리적 기능과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의 목표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로 기대되는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예측요인인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경험 또는 행복의 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박병기·홍승표 2004; 유경·민경환 2005; 유경 외 2009; 모화숙 외 2013; 한경훈·노수림 2016; Lyubomirsky & Lepper 1999; Diener & Seligman 2004; Diener 2006; Schokkaert 2007; Haybron 2008). 특히 성인기 후기로 갈수록 삶의 목표에서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최적화하는데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유경 외 2009; 한경훈·노수림 2016).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생에서 길어진 중·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안녕감은 다양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안되어 왔다(유경·민경환 2005; 유경 외 2009).

여러 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 주제이며, 주관적으로 경험된 정신상태가 이

러한 구성요소 중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며(Angner 2010), 개인의 태도나 관점, 감정이나 정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따른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Plant 1991; Bruide 2007). 또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참여, 만족 및 의미를 모두 포함하며(Diener 2001; Kesebir and Diener 2008),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Watson 1930).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베이비부머가 최적의 심리적 기능과 경험을 통해 행복한 삶의 주요 목표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Diener 2006).

2. 미래시간조망(Future-Time Perspective)

개인이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미래시간조망은 미래시간관점 이론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De Volder and Lens 1982), 최근 발달심리학에서 성인의 삶의 질,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Carstensen 1995; Noreen et al. 1997), 선행연구들에서 중년기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Hoppmann et al. 2017). 미래시간조망은 최근 부각되는 연구 주제로 개인이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적 맥락과 미래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현재가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는 정도가 개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적 맥락은 개인이 갖는 목표가 되며, 미래로 나아가는 개인의 시간관점이 확장될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세부목표와 계획이 많아지게 된다(Simons et al. 2004). 이렇게 미래시간조망은 인간의 미래인식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Husman and Shell 2008).

미래시간관점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과 시간에서 거시적인 목표는 미시적인 목표보다 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Trope and Liberman 2000; Holt et al. 2003; Schoenfelder and Hantula 2003). 그렇지만 미래시간조망을 강력하게 증가시키면 개인의 가치나 관점에 따라 목표의 근접성에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 미래의 장기목표

를 설정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미래시간조망을 사용해왔다(Husman and Shell 2008). 미래시간조망은 주로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하였는데(Rappaport et al. 1993; Lennings and Burns 1998), 미래시간조망의 확장은 개인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재 삶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게 됨으로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Lennings and Burns 1998; Drakulic et al. 2003; Vazquez and Rapetti, 2006). 그러나 중년이 지나면서 노화나 죽음에 대한 인식 등으로 미래시간조망에 대해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지각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가중되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appaport et al. 1993). 따라서 중년기의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조망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게 되어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3. 희망(Hope)

희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희망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byak et al. 1993; Ryan and Deci 2001; Sheldon et al. 2002; Green et al. 2007). 희망은 낙관적인 성향으로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현실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며(Beck et al. 1974), 행동적 변화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Green et al. 2007). 따라서 베이비부머가 최적의 심리적 기능과 경험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시키는데 희망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희망 개념은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의로 인지적인 측면과 목표추구 중심을 강조한 측면에 초점을 둔다(Snyder 2000). 희망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가

정 하에 시작되었다(Snyder et al. 1991). Snyder의 희망이론에서는 희망을 경로사고(Pathway Thought)와 주도사고(Agency Thought)의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로사고는 개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활용한다는 것이며, 주도사고는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경로를 사용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믿음을 말한다(Snyder et al. 1991; Snyder et al. 2002). 희망이 큰 사람은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조망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게 되어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Hayborn 2000; Kahneman 2000; Seligman 2002; Tiberius 2006; Brulde 2007; Angner 2010).

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모형

1) 미래시간조망, 희망,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그동안 여러 연구들은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밝혔고(Diener et al. 1999; Husman and Shell 2008; Charles 2010; Allemand et al. 2012),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 발달 과정에 일어나는 시간적 관심의 변화로 개인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미래감각을 유지해야만 주관적 안녕감을 최적화할 수 있다(Demiray and Bluck 201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Rappaport et al. 1993; Simons et al. 2004; Hoppmann et al. 2017).

국내외 연구들에서 희망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mmons 1986; Babyak et al. 1993; Ryan and Deci 2001; Sheldon et al. 2002; Green et al. 2007). 김미점·조한익(2015)은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

하였다. 희망척도를 개발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밝혀낸 일본의 연구에서도 희망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절망감, 우울 성향, 신체변화의 불안과 같은 요인들을 완만하게 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to and Snyd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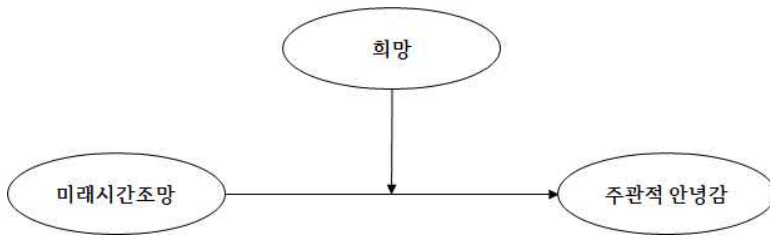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미래에 대한 시간적 맥락과 명확한 인지를 동시에 지닌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을 최적화하는데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조절초점인 희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한 고찰에서 미래시간조망, 희망,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 간에 연관성과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심리적 완충자원으로 간주하여,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산업화, 민주화, IMF 등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역사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가 초고령사회의 신노년세대를 이끌어 가는데 미래시간조망 확장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하는 경로에서 희망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자원으로 보호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래시간조망은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미래시간조망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희망에 의해 조절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 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한 대상에게 개별 면접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문항이나 실시방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본 자료의 수집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2월 28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 자영업, 자활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자원봉사자, 공무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하여 총 38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 완료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분명한 5부를 제외한 총 38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247명(65.0%), 남성 133명(35.0%)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60~65세 208명(54.7%), 60세 미만 153명(40.3%), 65세 이상 1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89명

14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4호 (2021)

(49.7%)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67명(43.9%)으로 가장 높았고, 동거가족은 346명(91.1%)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는 179명(47.1%)이 보통이었으며, 건강상태는 206명(54.2%)이 보통이었고, 경제상태는 263명(69.2%)이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380)

| 변수 |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성 | 133 | 35.0 |
| | 여성 | 247 | 65.0 |
| 연령 | 60세 미만 | 153 | 40.3 |
| | 60~65세 | 208 | 54.7 |
| | 65세 이상 | 19 | 5.0 |
| 학력 | 무학 | 3 | 0.8 |
| | 초등학교 졸업 | 15 | 3.9 |
| | 중학교 졸업 | 50 | 13.2 |
| | 고등학교 졸업 | 189 | 49.7 |
| | 전문대 졸업 | 65 | 17.1 |
| | 대학교 졸업 | 58 | 15.3 |
| 종교 | 불교 | 53 | 13.9 |
| | 기독교 | 167 | 43.9 |
| | 천주교 | 35 | 9.2 |
| | 없음 | 125 | 32.9 |
| 동거가족 | 없음 | 34 | 8.9 |
| | 있음 | 346 | 91.1 |
| 가족과의 관계 | 매우 좋다 | 32 | 8.4 |
| | 좋은 편이다 | 148 | 38.9 |
| | 보통이다 | 179 | 47.1 |
| | 좋지 않은 편이다 | 15 | 3.9 |
| | 매우 좋지 않다 | 6 | 1.6 |
|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하다 | 23 | 6.1 |
| | 건강한 편이다 | 117 | 30.8 |
| | 보통이다 | 206 | 54.2 |
| | 좋지 않은 편이다 | 29 | 7.6 |
| | 매우 좋지 않다 | 5 | 1.3 |
| 경제상태 | 매우 어렵다 | 6 | 1.6 |
| | 어려운 편이다 | 34 | 8.9 |
| | 보통이다 | 263 | 69.2 |
| | 어렵지 않은 편이다 | 53 | 13.9 |
| | 어렵지 않다 | 24 | 6.3 |

2. 측정도구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주관적 만족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서경험으로 평정감, 노화에 대한 적응, 삶의 만족의 하위 척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Lawton(1975)이 개발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Cronbach's α 는 0.908이었다.

2) 미래시간조망

미래시간조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한 개방성, 모호성, 제한성 조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미래시간조망은 Brothers et al.(2014)이 개발한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2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시간조망의 Cronbach's α 는 0.713이었다.

3) 희망

희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목표추구 특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번역판(최유희 외 2008)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범주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8문항(주도 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희망의 Cronbach's α 는 0.704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3.3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Andrew Hayes 교수가 조절효과의 정확한 검증방법을 보편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분석방법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에 제시한 각 변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셋째, 각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래시간조망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희망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래시간조망, 희망,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미래시간조망과 희망,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에서 먼저 미래시간조망은 희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471$, $p<0.001$). 둘째,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3$, $p<0.001$). 셋째, 희망과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415$, $p<0.001$).

<표 2>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 측정변인 | 미래시간조망 | 희망 | 주관적 안녕감 |
|---------|---------|---------|---------|
| 미래시간조망 | 1 | | |
| 희망 | .471*** | 1 | |
| 주관적 안녕감 | .363*** | .415*** | 1 |
| 평균 | 3.27 | 3.4 | 3.21 |
| 표준편차 | 0.460 | 0.473 | 0.554 |

* $p < 0.05$, ** $p < 0.01$, *** $p < 0.001$

2. 인과모형 검증 결과

1)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 미래시간조망은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t값과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력($t=7.581$, $p < 0.001$)을 갖는 것으로, 미래시간조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 구분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공선성통계량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공차 | VIF |
| (상수) | 1.780 | 0.191 | | 9.344*** | 0.000 | | |
| 미래시간조망 | 0.438 | 0.058 | 0.363 | 7.581*** | 0.000 | 1.000 | 1.000 |

* $p < 0.05$, ** $p < 0.01$, *** $p < 0.001$

2)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 미래시간조망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희망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고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활용하였고, Bootstrapping 5,000회를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미래시간조망과 조절변수인 희망은 평균중심화를 했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미래시간조망과 희망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206, t=2.135, p<0.05$). 즉,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희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R^2 변화량은 $0.009(p<0.05)$ 이었고, 상호작용항의 LLCI(0.016)와 ULICI(0.395)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4>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 변수 | B | S.E. | <i>t</i> | <i>p</i> | LLCI | ULCI |
|---------------|--------|-------|----------|----------|----------|-------|
| constant | 3.462 | 1.11 | 3.119 | 0.002 | 1.28 | 5.644 |
| 미래시간조망 | -0.434 | 0.331 | -1.312 | 0.19 | -1.086 | 0.217 |
| 희망 | -0.328 | 0.331 | -0.991 | 0.322 | -0.979 | 0.323 |
| 미래시간조망× 희망 | 0.206 | 0.096 | 2.135* | 0.033 | 0.016 | 0.395 |
| 상호작용에 따른 | R^2 | | F | | <i>p</i> | |
| R^2 증가 | 0.009 | | 4.559* | | 0.033 | |

* $p<0.05$, ** $p<0.01$, *** $p<0.001$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절변수의 값이 M-1SD인 2.86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간접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값이 M인 3.34(Effect=0.252, t=4.038, p<0.001)와 M+1SD인 3.813(Effect=0.349, t=4.660, p<0.001)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이 높을수록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희망(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 검증

| 조건부 간접효과 | Effect | S.E. | t | p | LLCI | ULCI |
|--------------|--------|-------|----------|-------|--------|-------|
| 2.867(M-1SD) | 0.155 | 0.079 | 1.947 | 0.052 | -0.002 | 0.311 |
| 3.34(M) | 0.252 | 0.062 | 4.038*** | 0.000 | 0.129 | 0.375 |
| 3.813(M+1SD) | 0.349 | 0.075 | 4.66*** | 0.000 | 0.202 | 0.496 |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희망을 이들의 심리적 완충자원으로 간주하여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희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노인세대인 베이비부머의 희망 및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삶의 주관적 만족과 일상생활에서의 정서경험의 만족을 파악하기 위한 Lawton(1975)의 주관적 안녕감척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남은 생의 시간을 조망하는 Brothers et al.(2014)의 미래시간조망척도, 개

인의 긍정적인 기질특성인 최유희 외(2008)의 Snyder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D광역시에 거주하는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로 성별은 여성이 65.0%, 남성이 35.0%이며, 연령은 60~65세가 54.7%, 60세 미만이 40.3%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9.7%로, 종교는 기독교가 43.9%로, 동거가족은 9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보통이 47.1%로, 건강상태는 보통이 54.2%, 경제상태는 보통이 69.2%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희망이 높고 미래시간조망이 확장되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중년의 베이비부머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신체적 건강 외에 특히 심리사회적 강화가 필요한 점에 주목하였다.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확장과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나이 들어감과 상관없이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이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이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삶의 목표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한경훈·노수림 2016; Ryan and Deci 2001; Sheldon et al. 2002; Green et al. 2007; Husman and Shell 2007; Charles 2010; Allemand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희망과 미래시간조망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조절효과 변인임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의 대상자에게 편의표본 수집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에 대한 측정이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노령화가 먼저 시작된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베이비부머가 은퇴와 상실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상태가 현저히 낮아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Bender 2004). 그러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일과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베이비부머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들의 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년기 복지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베이비부머가 직접적인 정보를 터득하여 심리사회적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의 개입이 부족한 실정이다(Quine and Carter 2006).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체적·심리사회적 건강, 주택, 일과 수입 및 여가활동을 통합하여 검토한 후 확인된 차이를 채워나가야 한다. 둘째, 희망 및 미래시간조망과 주관적 안녕감을 확장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구성요소인 삶의 즐거움, 미덕, 잠재력 등 자신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스스로가 디자인 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고찰하게 해야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미래에 자신의 삶의 질, 바라는 이미지, 필요한 곳에 능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Pieter and Pohlmeier 2013). 이는 노년기를 맞이할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개인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이익과 공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길태영·이진용. 2017.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 44권 4호, 103-126.
- 김미점·조한익. 2015. “희망과 적응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학회』 29권 2호, 331-360.
- 모화숙·박미라·하대현. 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학회』 27권 3호, 761-781.
- 박병기·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학회』 18권 3호, 159-175.
- 유경·민경환. 2005.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최적화 특성의 변화: 정서 경험과 사회적 목표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5(2): 211-227.
- 유경·이주일·강연옥·박근석. 2009. “노년기 정서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권, 729-742.
- 이현정. 2016. “1·2차 베이비부머 및 에코부머의 세대 간 주택자산효과 차이 비교.” 『한국인구학』 29권 2호, 105-130.
- 최윤희·이희경·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권 2호, 1-16.
- 한경훈·노수림. 2016. “한국 중·노년의 미래시간조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2권 2호, 1-16.
- Allemand, M., Hill, P.L., Ghaemmaghami, P. and Martin, M. 2012. “Forgiving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ulthood: The Moderating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1): 32-39.
- Angner, E. 2010.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o-Economics*, 39(3): 361-368.
- Babyak, M.A., Snyder, C.R. and Yoshinobu, L.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ope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234-252.
- Beck, A.T., Steer, R.A., Kovacs, M. and Garrison, B.S. 1985. “Hopelessness and Eventual Suicide: A 10-Year Prospective Study of Patients Hospitalized with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Psychiatry*, 142(5): 559-563.

- Beck, A.T., Weissman, A., Lester, D. and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iatry*, 20: 779-785.
- Bender, K.A. 2004. *The Well-Being of Retirees: Evidence Using Subjective Data*, New York: Boston college.
- Ben-Shahar,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McGraw-Hill.
- Brothers, A., Chui, H., and Diehl, M. 2014. "Measuring Future Time Perspective across Adulthood: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Brief Multidimensional Questionnaire." *Journal of Gerontology*, 54(6): 1075-1088.
- Brulde, B. 2007. "Happiness Theori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15-49.
- Carstensen, L.L.,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5): 151-155.
- Carstensen, L.L., Turan, B., Scheibe, S., Ram, N., Ersner-Hershfield, H., Samanez-Larkin, G.R. and Nesselroade, J.R. 2011. "Emotional Experience Improves with Age: Evidence Based on Over 10 Years of Experience Sampling." *Psychology and Aging*, 26(1): 21.
- Charles, S.T. 2010. "Strength and Vulnerability Integration: A Model of Emotional Well-Being Across Adulthood." *Psychological Bulletin*, 136(6): 1068.
- Chekoal, M. 2007. "Happiness, Rationality, Autonomy and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 51-78.
- De Volder, M.L. and Lens, W. 1982. "Academic Achieve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 as a Cognitive-Motivational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3): 566.
- Demiray, B. and Bluck, S. 2014. "Time Since Birth and Time Left to Live: Opposing Forces in Constru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geing and Society*, 34(7): 1193-121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

2-575.

- Diener, E. 2001. "Psychology Well-Being(Subjectiv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4: 16451-16454.
- Diener, E.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 151-57.
- Diener, E. and Seligman.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1-31.
- Diener, E., Suh, E.M., Lucas, R.E. and Smith, H.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rakulić, B., Tenjović, L. and Lečić-Toševski, D. 2003. "Time Integration Questionnaire. Construction and Empirical Validation of a New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Time Experienc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9(2): 101.
- Emmons, R.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62-676.
- Green, S., Grant, A. and Rynsaardt, J. 2007. "Evidence-Based Life Coaching f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Building Hardiness and Hope." *International Coaching*, 2(1): 24-42.
- Haybron, D.M. 2008. Philosophy an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In: Eid, M. and Larsen, R.J.(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olt, D.D., Green, L. and Myerson, J. 2003. "Is Discounting Impulsive?: Evidence from Temporal and Probability Discounting in Gambling and Non-Gambling College Students." *Behavioural processes*, 64(3): 355-367.

- Hoppmann, C.A., Infurna, F.J., Ram, N. and Gerstorf, D. 2017. "Associations among Individuals' Perceptions of Future Time, Individual Resource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 Ag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2(3): 388-399.
- Husman, J. and Shell, D.F. 2008. "Beliefs and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A Measurement of Future Time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166-175.
- Kahneman, D. 2000. Experienced Utility and Objective Happiness. In: Kahneman, D., Tversky, A. (Eds.), *Choices, Values and Fra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o, T. and Snyder, C.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ispositional Hope Scale, Japanese Version."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6(3): 227-234.
- Kesebir, P. and Diener, E. 2008. "In Pursuit of Happiness: Empirical Answers to Philosophical Ques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17-125.
- Lawton, M.P. 1975.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PGCMS)." *Journal of Gerontology*, 38: 181-189.
- Lennings, C.J. and Burns, A.M. 1998. "Time Perspective: Temporal Extension, Time Estimation, and Impulsivity." *Journal of psychology*, 132(4): 367-380.
- Lyubomirsky, S. and Lepper, H.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55.
- Masten, A.S. and Coatsworth, J.D. 1998.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Their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539-551.
- Noreen, E.M., Thomas, J.Y. and Adela, Y. 1997. "Future Time Perspective and Positive Health Practices in Young Adults: an Extens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4(3): 1299-1304.
- Nuttin, J. 2014. *Future Time Perspective and Motivation: Theory and Research Method*. New York: Psychology Press.
- Plant, R. 1991. *Modern Political Thought*. Oxford: Blackwell.

- Quine, S. and Carter, S. 2006. "Australian Baby Boomers Expectations and Plans for Their Old Age."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5(1): 3-8.
- Rappaport, H., Fossler, R.J., Bross, L.S. and Gilden, D. 1993. "Future Time, Death Anxiety, and Life Purpose Among Older Adults." *Death Studies*, 17(4): 369-379.
- Ryan, R.M. and Deci, E.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a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choenfelder, T.E. and Hantula, D.A. 2003. "A Job with a Future? Delay Discounting, Magnitude Effects, and Domain Independence of Utility for Career Decis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1): 43-55.
- Schokkaert, E. 2007. "Capabilities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8: 415-430.
- Seligman, M.E.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E.P. and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eldon, K.M., Kasser, T., Smith, K. and Share, T. 2002. "Personal Goals and Psychological Growth: Testing an Intervention to Enhance Goal Attainment and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0: 5-31.
- Simons, J., Vansteenkiste, M., Lens, W. and Lacante, M. 2004. "Placing Motivation and Future Time Perspective Theory in a Tempor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2): 121-139.
- Snyder, C.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San Diego: Academic Press.
- Snyder, C.R., Harris, C., Anderson, J.R., Holleran, S.A., Irving, L.M. and Sigmon, S.T.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R., Rand, K.L. and Sigmon, D.R. 2002. Hope Theory: A Member of the Positive Psychology Famil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iberius, V. 2006. "Well-Being: Psychological Research for philosophers." *Philosophy Compass*, 1: 493-505.
- Trope, Y. and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76.
- Vazquez, S.M. and Rapetti, M.V., 2006. "Future Time Perspective and Motivational Categories in Argentinean Adolescents." *Adolescence*, 41(163): 511.
- Watson, G. 1930. "Happiness Among Adult Students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79-1.

투고일 : 2021년 6월 28일 . 심사일 : 2021년 7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6일

- * 길태영은 대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실천으로 노인 복지, 장애인복지, 죽음준비교육, 노인놀이치료와 동물매개치료의 융복합, 질적 연구(질적 해석적 메타통합; QIMS)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in the Related that between the Future-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Baby Boomer

Tae-young Kil
(Joongbu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baby boomer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performed on baby boomers (1955-1963) in D city by face to face and a total of 38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9.0 and PROCESS macro 3.3 statistical program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and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uture-time perspectiv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bjective well-being can be enhanced by expanding the future-time perspective of baby boomers, and subjective well-being can be enhanced if hope is utilized in various routes even if the level of future time perspective expansion is low. Based on this integrated path confirmation, various methods were sought to enhanc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baby boomers.

Keyworlds : Subjective well-being, future-time perspective, hope, baby boomer